



반복되는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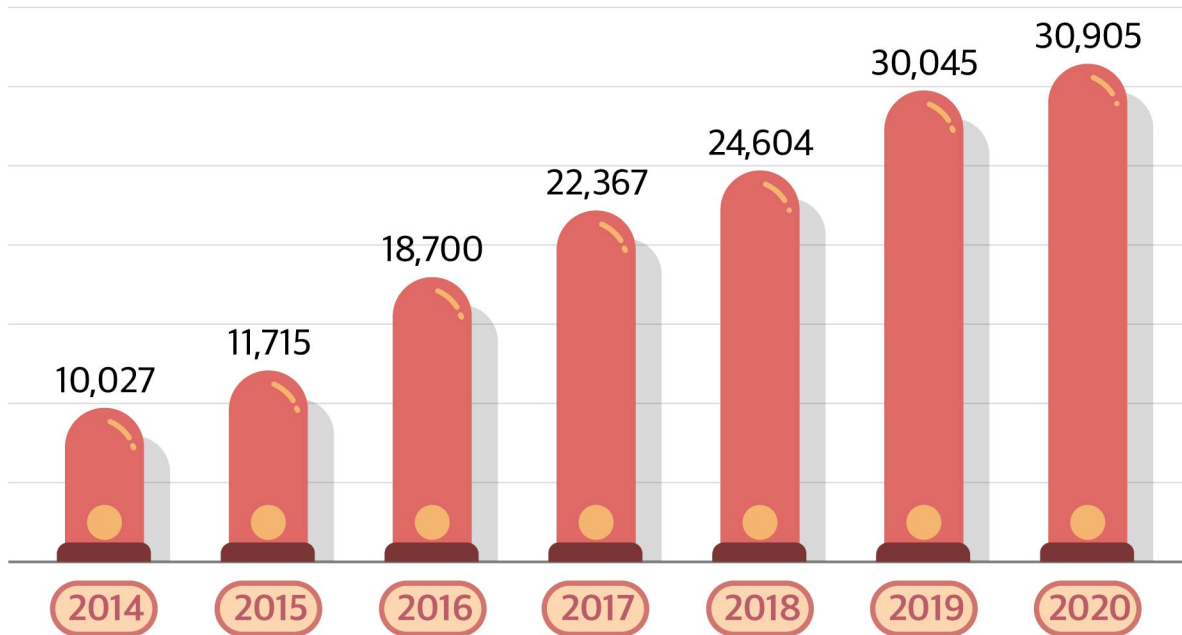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학대 피해...



지난 7년간 전체 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의 학대피해아동 발생건수는 2014년 대비
약 3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발생건수(2014~2020)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 영유아 사례 발굴 비중 확대
-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 코로나19 하에서도 방문조사 원칙

아동 관점 학대 대응체계 보완

- 분리보호 중 학습권 보장
- 심리지료 지원 확대
-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등

아동학대 인식개선

- 부모교육 확대
- 예방매뉴얼 마련
- 체벌금지 인식 확산 등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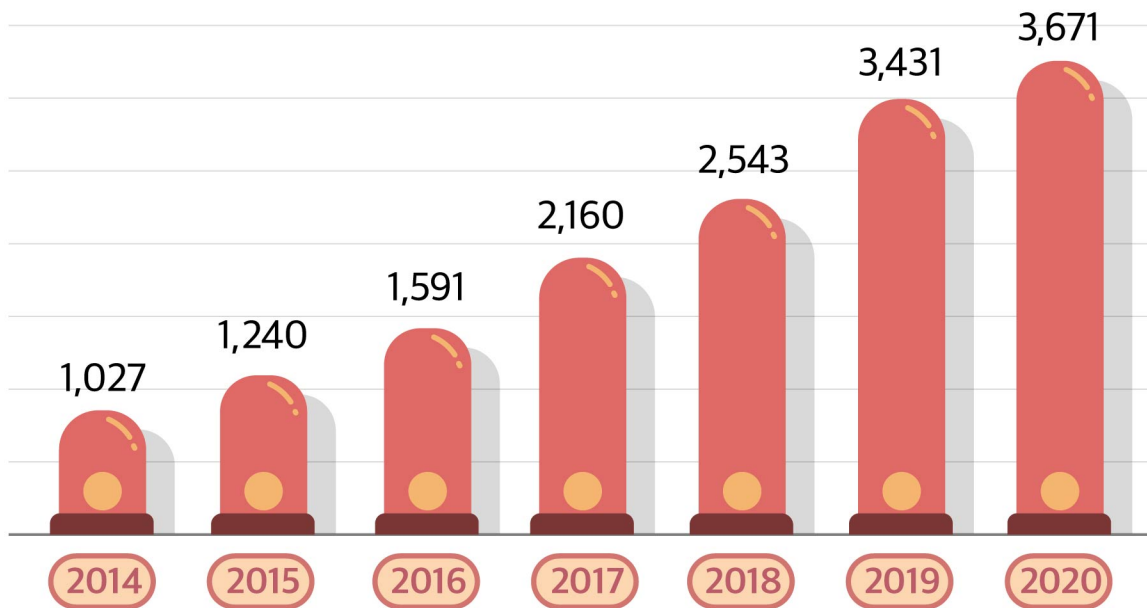
-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 현장대응 인력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나 재학대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늘어가는 재학대..

2014~2019년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2014~2020)





학대아동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년간 4회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모니터링으로 실시됩니다.



아동복지법 제 16조의 2

학대아동의 원가정보호조치 비율(2020)



의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6조의2),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28조)

수행주체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의 보호기관

방법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이행 및 점검

연령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한 아동의 모니터링



2020년 기준, 전체 피해아동의 83.9%,
재학대 피해아동의 68.3%에 대해 원가정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학대아동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필요조치는?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모니터링

관계개선, 재학대 등을 위한 모니터링 기간 점진적 지속적 확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대면상담, 유선상담 등

인력 확충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정부·지역사회 등 사회구성원의 협력체계를 통한 실질적·전문적 아동학대 사후시스템 구축!

보다 확실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